

‘어대낙’ 전망 속 후발 주자 막판 지지 호소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민주 전대 D-1... 당 지도부 자가 격리에 흥행 먹구름

이낙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방안 준비”

김부겸·박주민 “2차 재난지원금 신중 반응은 정확한 판단 아니다”

오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당권 주자들도 앞다퉈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극심한 ‘흥행 저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거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행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코로나 19 정국 속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되다 보니 관심을 전

혀 끌지 못했고, 이낙연 의원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흥행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27일 각 후보진영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를 독려하며 언론 인터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이낙연 후보는 페이스북에 자가격리 중인 자신의 근황을 알리며 “코로나 확진자가 국회에서도 나와 국회가 일시정지. 격

정이다”라고 적었다. 또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크다”며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함께 견디어 내십시오”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중인 이 의원은 이날 방송국 토론회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전화와 화상을 통한 언론사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오는 31일 낮 12시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히 이 후보 견제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TV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고려할 때 일정한

퍼센트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며 각을 세웠다.

당내에서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야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관전 포인트는 이 후보의 과반 득표, 김 후보의 득표율 선전, 박 후보의 막판 추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선호도는 이 후보가 48%, 김 후보 15%, 박 후보 8%로 조사됐다.

이날 코로나 19 여파로 국회가 문을 닫았지만 전대 일정 자체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오광록 kroh@kwangju.co.kr



국회 출입 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27일 오전 국회 본관이 폐쇄돼 출입구가 쇠사슬로 굳게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코로나 ‘셋다운’...9월 정기국회 차질 우려

국회 의사당 등 긴급 방역

9개 상임위 일정 모두 연기

코로나 19는 국회의 시계도 멈추게 했다. 국회가 27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셋다운 되면서 여야의 정치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특히, 여당 지도부와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해 만일의 경우 9월 개막하는 정기국회 의사일 정마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

지고 있다.

이날 여의도 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에 방역을 진행했다. 주요 출입문은 쇠사슬로 굳게 잠겨 통제됐다.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사무실도 이날 급계 문을 닫았고, 자택 등지에서 업무를 진행했다.

해당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50여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등 9개 상임위의 결산심사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원내 정당들의 공개회의 일정도 전면 취소됐다.

전국적인 감염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정상적 국회 운영이 어려운 만큼 내달 1일 예정된 정기국회 개최식, 결산안 의결을 위한 4일 본회의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날 최고위 후 박병석 국회의장,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과 회동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박 의장은 일정을 백지화하고 공관에 머물고 있다.

2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가격리 중인 유력 당원들이 당일 외부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도 내달 1~2일 상임전국위 등 일정도 국회 상황에 맞춰 다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선제 조치로 중앙당사를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의사 총파업은 이해집단 똘똘부리기”

통합당 “공정하지 못한 공공의대 정책 철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신코로나 19 재유행 속에 2차 총파업에 나선 의사 집단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야권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파업 중단을, 정부에게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자고 합의해 놓고서 진료 거부에 들어간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정책추진을 백지화하라는 것은 이해집단의 똘똘부리기”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용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제시절 독립군 자금줄 역할을 했던 경주 최부자집이 ‘흉년일 때 땅을 늘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재난이 끝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한병도 의원은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은 현재 시기에 맞지 않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와 미래통합당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양의원영 의원은 “이 모든 것은 전 목사와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됐으며, 통합당이 관련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통합당은 집회를 강행한 이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통합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공정하지 못한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하고, 의료계는 파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여권을 향해서는 “갈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비열한 변가르기 전술의 일환으로 보려는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서로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대통령 긍정평가 49.4%,...7주만에 부정평가 앞질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7주 만에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광화문 집회 등의 영향으로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민주당과 격차가 7주 만에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른 49.4%로 집계됐다. 2주 연속 상승이다. 부정 평가는 46.6%로 4.2%포인트 내

렸다. 모름·무응답은 1.0%포인트 오른 4.1%였다.

긍정 평가는 부정 평가보다 2.8%포인트 높았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안이지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선 것은 7주 만이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1.6%포인트 오른 41.3%로 9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통합당은 4.8%포인트 내린 30.3%로 나타나 2주 연속 민주당에 뒤졌다. 두당 지지도 격차는 11.0%포인트로,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은 7주 만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김희재 ‘출산전후 급여 평균임금 기준 인상’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은 27일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기준의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강화해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 휴가 근로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

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과 차이가 커 기본급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이를 현실화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전후 휴가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재)익산사랑장학재단

2020 장학생 선발 접수

선발 개요

- ◆ 접수기간 : 2020. 9. 2(수) ~ 9. 9(수) 18:00까지
- ◆ 선발대상 : 초·중·고·대학생(휴학생제외)
- ◆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 272명, 271,900,000원

자격 기준

- ◆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익산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

구분	계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장학금(1인)
계	272	1	93	89	89	
일반(성적)	65			30	35	고 70만원 대 200만원
특별(저소득)	30			15	15	고 70만원 대 200만원
다문화	10			10		고 70만원
예체기능	6	1	1	2	2	초·중·고 100만원 대 200만원
다자녀(3자녀이상)	95		30	30	35	중 50만원 고 70만원 대 200만원
인성(자원봉사)	6		2	2	2	중 50만원 고 70만원 대 100만원
복지비전카드	60		60			중 25만원

문의

- ◆ 접수처 : 익산사랑장학재단 (익산시청 4층) 방문 접수
- ◆ 문의 : 익산사랑장학재단 ☎063)859-5159 / 5152

※ 자세한 사항은 익산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 (www.ilsaf.or.kr) 장학생 선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